

■ 돌고래호 전복 사고 사건 일지

오후 7시 ▶	오후 7시30분 ▶	오후 8시10분 ▶	오후 8시25분 ▶	오후 8시30분 ▶	오후 8시39분 ▶	오후 8시42분 ▶	오후 8시45분 ▶	오후 8시47분 ▶	오후 8시50분 ▶	오후 9시 ▶
돌고래호 하추자도 출항신고 (하추자도 해경안전센터)	돌고래1호 하추자도 출항신고 (상추자도 해경출장소)	돌고래 1호 선장 해경출장소 방문 “돌고래호가 연락이 안된다”	돌고래 1호 선장 V-PASS 확인 요청 (돌고래호 항적 오후 7시39분 소멸 확인)	출장소 안전센터 에 승선자 명부 확인 요청	안전센터 돌고래호 명부에 있는 박모씨와 통화 (승선 중임을 확인)	안전센터 출장소에 “이상 없음” 연락	박모씨 안전센터에 “승선 안했다” 연락	안전센터 박모씨 승선 안한 사실 출장소에 통보 및 V-PASS 재확인	출장소 민간자율구조선 수배	안전센터 제주 상황센터 로 보고
81분										

남성항·신양항 CCTV 고장 방치…입출항 관리 구멍

〈해남〉

〈제주〉



돌고래호가 출항했던 해남 남성항의 고장 난 채 방치된 CCTV. 어민들은 이 CCTV를 수리·운영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경은 예산이 없다며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남=김형호기자 khh@

남시어선 돌고래호 사고 키운 해경의 관리 부실

주민들 수차례 수리 요구 묵살…승선인원 파악못해 항해 선박 위치 모니터링 소홀 골든타임 81분 허비

승선자 명부 관리 허술, 항해 선박 모니터링 부재, 초기 대응 실패와 골든 타임 허비… 해경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돌고래호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의 어민들이 해경에 고장난 CCTV를 수리·운영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 해경 스스로 어선들의 입출항 관리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남성항·신양항 CCTV 고장 방치…승선 인원 혼선=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부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사고 선박에 탑승했던 인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까지 사망자 10명과 생존자 3명 등 모두 13명이 탑승한 사실만 확인했다. 하지만 전체 승선자와 실종자에 대해

서는 각각 21명과 8명으로 추정할 뿐이다.

입출항 관리의 최후 보루인 해남 남성항과 제주 신양항의 CCTV가 공교롭게 모두 고장나 있는 상황이다. 남성항 부둣가에 설치된 CCTV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파손된 이후 변경대기만 남아 있고, 신양항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지난 8월24일 오작동이 발생해 고장 신고가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이 CCTV만 제대로 작동했다더라도 정확한 탑승 인원을 단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남성항의 경우는 그동안 주민들이 CCTV 수리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마을 어촌계장은 “낚싯배 등이 오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여서 수차례 해경 측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3년 넘게 수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도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안가에 설치된 CCTV는 태풍이나 파도, 강풍으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난다”며 “해경 본청에 해마다 예산을 신청해왔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소홀…골든타임 81분 놓치=해경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모니터링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 상추자도 해경 출장소는 지난 5일 오후 8시25분께서야 돌고래1호 선장의 요청을 받고 돌고래호의 V-PASS를 점검, 돌고래호의 ‘항적’이 오후 7시39분께 최종 소멸한 것을 확인했다. 돌고래1호 선장의 요청이 있거 46분 전 이미 돌고래호가 항적에서 사라졌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V-PASS는 선박 이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일선 해경은 선박의 입·출항 관리를 이 장치로 하고 있다.

완도해경이 해남 북평출장소를 ‘상주’ 인력을 두는 곳에서 ‘순찰형’으로 전환한 이유도 이 장치에 대한 믿음이 때문이었다. 배가 출항할 경우 센터 시스템에 출항신고가 바로 접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고래호 출항 당시 풍속이 초당

9~11m, 파고가 2.5m에 이르는 악천후 속에서 제주 추자출장소와 해남 땅끝출장소는 서로 관리를 떠넘기며 V-PASS를 통한 항적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치에서 돌고래호가 사라진 직후 초기 대응에 나섰더라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V-PASS 모니터링 소홀은 결국 골든타임 허비로 이어졌다. 특히, 해경은 돌고래호의 V-PASS 신호 소멸을 확인한 후에도 즉각 수색과 구조에 나서는 대신 부정확한 승선자 명부를 붙잡고 전화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던 박모(43)씨의 “잘 가고 있다”라는 말에 오락가락했다.

때문에 추자안전센터가 5일 오후 9시께 제주해경 상황센터에 보고했을 때는 이미 35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실제 V-PASS 소멸 시점(오후 7시39분)을 생각하면 이미 81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는 의미다. 추자안전센터는 “인원이 적다 보니 모든 어선의 입출항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돌고래호 승객 가족들 대책위 구성

실종자 수색·구조 과정 진상 규명 촉구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전복된 돌고래호 승객 가족들이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실종·사망자 가족 70여명은 7일 오전 사고 연고자 대기소가 마련된 해남 다목적 생활체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위원장 한 명과 실종·사망자 가족으로 각각 구성된 부위원장 2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실종·사망자 가족들의 요구 및 질문 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한다.

가족들은 해경이 사고 발생 신고 및 구조가 지연된 경위나 구조 상황 등에 대해 지금까지 한차례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사망자 가족들은 해경이 11시간 동안 물에 빠진 승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어선이 생존자를 구조한 점 등을 지적하며

당시 현장 도착 시각과 수색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족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6일 오전 6시30분까지 해경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라며 “해경 등 구조당국에 현장 투입 선박의 선명도와 항로일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복된 돌고래호 낚시객 중 4명은 낚시용 구멍조끼를 입은 채 구조를 기다리다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경의 초동조치 부실에 대한 지적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가족들은 이날 오후 구조당국 초동조치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 뒤 해남군 송호리 땅끝 선착장에서 전남도 소속 1600t급 어업지도선을 타고 사고현장인 추자도 해역을 둘러봤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7일 오전 해양경찰구조대원 등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 등은 배 72척·항공기 9대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전문 잠수요원 6명 투입 돌고래호 수중 수색

해경의 수색 작업 이틀째인 7일 추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돌고래호에 대한 수중 조사가 진행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돌고래호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정오께부터 중앙해양 특수구조단 등 전문 잠수요원 6명을 투입해

수중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본부는 우선 수중 감식 사진과 5일 실종자 수색 당시 촬영한 수중 사진 등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조만간 돌고래호 선체를 인양해 선체가 물체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높은 파도에 의해 전복됐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생존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본부는 병원에 입원한 3명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표류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파산·개인회생자 등친

법무사 여직원 구속

법원 결정문 위조 1억 가로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산·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등친 법무사 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손석천)는 7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파산이나 회생결정이 난 것처럼 속여 신청비용 등을 가로챈 법무사 사무원 A(여·34)씨를 공문서 위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무자격자인 A씨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법무사 B(93)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파산·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실제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도 법원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한 것처럼 결정문을 위조해 의뢰인을 속였다. 파산·개인회생 결정이 난 것으로 알았다가 채무 독촉을 계속 받게 된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A씨는 채권자가 추가돼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인회생 사건이 처리될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내야 하는 변제금까지 엉뚱한 계좌로 입금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회춘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파산·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사건 처리를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여부 등을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공포영화에 고개 돌린 여성지갑 슬쩍

○영화관에서 공포 영화를 관람하던 여성이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고, 뒷자리의 40대가 슬쩍서 손을 뻗어 이 여성의 지갑에 손을 댔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순모(49)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6시50분께 서구 광천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정모(여·22)씨의 손가방에서 현금 3만7000원을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금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영화관 직원에게 ‘뒤에 앉았던 남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중간에 나와서 전하자 영화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이후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절도범을 붙잡은 데 이어 도난당한 돈도 그 자리에서 되돌려주게 됐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관광특구!
투자가치 확신!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감평가 - 28억 / 시세 30억 정도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1억원 이상
수익률-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